

다윗 왕의 인생과 참된 왕 그리스도

사무엘하 24:1-10, 누가복음 1:32-34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사무엘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24장으로 되어 있는 <사무엘하>서는 전체가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다윗서'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윗은 지금부터 3천 년 전 사람인데, 중국 춘추전국시대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다. 중국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도 사실 다윗 시대에는 역사가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노아의 홍수 이후 문명이 동쪽으로 뻗어나간 것이다.

사실 교과서가 성경과 맞지 않는 틀린 것이 너무 많다. 교과서, 역사, 윤리를 전부 성경으로 회복해야 한다. 개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케논에서 벗어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수제자가 비트겐슈타인이다. 20살에 러셀의 강의를 듣고 철학에 빠졌다. 비트겐슈타인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강의를 몇 번 듣고 철학 책을 섭렵한 다음 책을 썼다. <논리철학논고>라는 책을 쓰고 철학은 이것으로 끝났다 하고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철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런 스승이었던 러셀이 쓴 책이 <행복의 정복>이다.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안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외부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였다. 굉장한 엘리트들이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가 버린 것이다.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다. '윤리, 도덕에 매몰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말고, 윤리에 너무 놀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였다.' 그 책을 읽고 석학들이 기독교를 버렸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삼형제가 모두 동성애에 빠졌다. 첫째 형은 자살했고 둘째 형은 자살을 늘 생각했으며 비트겐슈타인은 암에 걸려 죽었다.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윤리, 도덕 없는 불행한 사회를 만들었다. 복음이 없으니까 리더들이 사회 망치는 공부를 하다가 죽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사춘기인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이 야동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는 다르다. 복음 없는 사람은 스펀지와 같아서,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더러워지고 회복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면 씻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회개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상을 숭배한 죄,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 주님밖에 없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다 불행하게 되었다. 재앙, 저주, 오만 가지 문제가 왔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서론 : <사무엘하>서를 기록한 영적 목적

서론적으로, <사무엘하>의 영적 목적이 무엇인가?

-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꼭 지도자들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를 거기에 맡긴다. 내 친구가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데 차를 사고 고사는 지내더라. 안 지내고 가다가 사고 났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 사주팔자, 재앙,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고사 지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응답받는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도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된다. 환난,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 칠 필요가 없다.
- (2) 어떤 훌륭한 인물에게도 공과(功過)가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램넛트들이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야 한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었다. 그런데 정신적 문제가 많았다. 많이 시달렸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것도, 복부가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램넛트들이 책을 볼 때 '이건 아닌데?' 할 수 있다. 공과 과가 다 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록펠러도 마찬가지다. 십일조로 성공하고,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지었다. 그런데 록펠러가 잘못된 것도 많다. 왜 그랬을까? 링컨, 록펠러, 이들이 완전한 복음을 알았겠는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해했겠는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비밀을 알았겠는가. 창세기 3장과 사단의 전략을 알았겠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지, 왜 오직 예수인지 모른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죄, 지옥, 저주, 사단,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하나님만이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주관한다. 핵폭탄으로도 이길 수 없다. 마귀는 정치하는 사람을 가지고 논다. 정치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 마귀는 교만했던 존재다. 그러다가 타락했다. 이 사단이 가장 틈타기 좋은 자가 정치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김중필 전 총리가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다. 그게 맞는 말이다. 다 공이 있고 과가 있다.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김중필 씨도, 박정희 대통령도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한다. 시대를 잘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속에 있는 개인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훌륭하고 잘나고 인격적이어서가 아니다. 싸움 잘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4) 한 국가의 왕도,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어려움과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양을 치고 있으니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다. 외로웠다. 외로워서 악기를 연주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해야 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다. 램넛트들이 청소년 때 정말 연습해야 한다. 반복해서 한 부분을 연습해야 한다. 우리 램넛트, 후대, 청소년들이 잘 준비되어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다. 도가니와 풀무에 연단되는 것처럼 많은 역경을 통과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은 기도 속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그런 후대들,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1.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할 부분

첫 번째로,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인격,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체질이 믿음의 체질로 바뀐 사람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1) 다윗은 중심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 다윗이 얼마나 그릇이 큰가. 사무엘하 1:11-12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노숙자를 시키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겠는가.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2) 모든 사건, 상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다. 사무엘하 2:1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

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냥 묻고 끝나지 않고 자세히 물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었다.

(3)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왕이었다. 사무엘하 7:2을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뭇지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호렘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아직도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마음아파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다. “나는 좋은 차를 타는데 우리 교회 봉고차는 낡았구나.” “나는 TV를 좋은 것으로 바꿨는데 우리 교회 화면은 아직도 안 좋구나.” 그렇게 문화정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주셨다. 나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10년 동안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밥 사주고 다 해 줘야 했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취직시킬 것인지,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장애인들을 돌보는 저 선생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기도하고 고민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란다.

(4)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지적을 받았을 때 겸허하게 회개했다. 사무엘하 12:13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간음한 죄를 범했다가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다. 인구 계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인구를 의지했다. 숫자를 세는 것이다. 믿음이 떨어진 것이다. 당연히 왕이 되었으면 국민 숫자를 세어야 할 것 아닌가? 단지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불신앙에 빠졌던 것이다. 이것을 회개했던 것이다. 환경, 주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셨지 않나. 그런데 왜 다시 계산하고 주판알을 튕기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사무엘하 24:10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충만을 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

(5)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하 16:5-10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6:5을 보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한 것이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다윗을 계속 저주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장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 하니, 다윗이 이를 제지한다. 사무엘하 16:11을 보라.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다. “또 다윗이 아버지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인기를 끌어서,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끝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란다. 다윗은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다윗의 과실

다윗의 과실도 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려고 한다.

- (1)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했다.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도, 또 충성된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 인간의 물질, 권력의 욕심은 끝이 없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진다.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 (2)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추악한 살인을 범했다. 계략을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싸우게 했다. 칭찬하는 척 하면서 죽게 만들었다. 아내를 빼기 위함이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이 모습이기도 하다. 훌륭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

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3) 다윗은 소년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년에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충성된 부하 장군 요압의 충고를 무시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충성된 보좌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어릴 때는 돌 하나만으로 승리했지 않은가. 우리의 영적 힘이 약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깊은 목상을 통해 성령충만을 받으면 불안, 염려는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결론 : <사무엘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도전해야 할 미션

오늘은 사무엘하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와 우리 후대가 도전해야 할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1)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왕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라에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니엘, 요셉을 보라. 이방 왕, 우상 섬기는 왕들 옆에서 복음을 가지고 섬겼다. 바벨론, 로마, 애굽을 그렇게 해서 변화시켰다. 그런 좋은 자가 없어서 지도자들이 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게 하실 것이다.

(2) 지도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천명이다. 어떤 지도자를 치유해야 하겠는가?

- ① 참 복음을 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② 사회 지도자를 치유해서 복음에 유익한 인재로 세워야 한다. 교수, 교장들을 치유해야 한다. 교수들이 이상한 책을 가지고 온 사회를 무너뜨려서, 포스트모더니즘을 퍼뜨려서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들을 치유해야 한다. 사회지도자,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확실한 치유의 증거가 있다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 ③ 종교 지도자들을 바꿔야 한다. 기독교 안에도 너무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다. 그뿐 아니다. 3단체, 천주교, 불교, 이단들까지 치유하는 전도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주도 캠프를 갔는데 하필 우리가 있던 호텔이 예멘 난민들이 있던 호텔이었다. 난민에 대한 기도제목을 강하게 붙잡고 왔다.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하겠다.

(3) 이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절대적인 제지와 렘넌트가 나와야 한다. 예멘 난민 중에도 전체를 살릴 제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복음을 알아듣는 절대 제자를 찾아내면 된다. 요셉, 다니엘, 디모데같은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윗을 능가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김으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우리 교회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